지역 소식통

진안군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인사 단행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첫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1월 13일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시행하는 승진인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진안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업무실적과 경력, 추진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졌다"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기반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규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후 첫 자체승진 인사를 하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더욱 막중해진 의회의 역할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승진내정자 명단은 총 3명으로 다음과 같다. △5급 1명 : 김갑기, △6급 1명 : 송분예, △7급 1명 : 윤원탁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작은영화관 관람료 1천원 인상

진안군 작은영화관 관람료가 1,000원 인상된다.

진안군은 지난해 30일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하고 영화상영 시간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람료 인상은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일반 멀티플렉스 영화관 관람료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영화 배급사들의 인상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영화 관람료는 주중·주말 관계없이 현행 6000원에서 7000원으로 3D영화 관람료는 8000천원에서 9000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청년·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장수군이 청년과 신중년 및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취업지원(만18~39세) 5명과 신중년취업지원(만40~69세) 6명 등 총 11명을 선발해 정규직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신중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7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청년·신중년층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300만원(신중년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장수군 소재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정규직을 추가채용 하거나, 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지원하며, 월 급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13일까지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일자리청년팀(063-350-2194)으로 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임진왜란 웅치전적 사적 지정 고시

전춘성 진안군수 "전북도·완주군·진안군 협심 이뤄낸 성과… 성역화 사업 펼칠 것"

웅치전적지 전경

임진왜란 당시 육상에서의 첫 승전지인 웅치전적지가 지난 30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고시됐다.

진안군은 지난 10월 12일 문화재청에서 개최된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에서 진안군민의 염원을 담은 '임진왜란 웅치전적' 국가 사적 지정이 가결되었고, 11월 11일부터 30일간 지정예고를 통해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12월 14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를 거쳐 문화재 지정을 심의했고, 30일 '임진왜란 웅치전적' 사적지정이 최종 고시됐다.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구역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과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일대로 약 23만2,329㎡이다.

진안군은 민선 7기에 이어 8기까지 꾸준히 웅치전적지 성역화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학계·정계·언론 및 전북도·완주군과 공동으로 노력해 웅치전투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왔고, 기관·단체·지역사회와 꾸준한 소통으로 웅치전투 홍보에 박차를 가해왔다.

웅치전적지 성역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06년 학술대회, 2017년 정밀지표조사 및 종합 학술조사, 2018년 시굴조사, 2019년 발굴조사 등 지난 16여년간 부단한 노력을 이어왔다.

군은 특히 임진왜란 이후 430여년 간 매해 추모제를 지내온 웅치마을 주민들이 결성한 사단법인 웅치전적지 보존회에 매년 추모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웅치영령 추모사당인 창렬사를 건립하는 등 치열했던 임진왜란 웅치전투에서 희생한 선조들의 넋을 기려왔다.

웅치전적지 보존회(이사장 손석기)는 '임진왜란 웅치전투의 전적지', '임진, 정유년 전북출신 순절자 명단' 등 연구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춘성 군수는 "웅치전적지 사적승격은 전북도와 완주군, 진안군이 협심하여 이뤄낸 아주 귀한 성과다"며 "전북도·완주군 및 학계·정계·언론 및 사회단체 등 함께 노력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임진왜란 웅치전적이 사적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전북도·완주군과 함께 성역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며 "웅치전투에서 산화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앙양하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의 참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국도 위험도로 개선 '탄력'

위험도로·병목지목 개선 7단계 기본계획 10개 사업 포함

무주군 지역내 국도가 교통사고 부담에서 해소될 주민친화형 도로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국토부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에 안성면 죽천 회전교차로 등 병목지점 개선 10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번 확정된 사업은 총사업비 130억원을 들여 적상면 사산리(국도 19호선) 등 5개소의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무주 안성면 죽천리(국도 19호선) 등 5개소의 회전교차로 사업이 선정됐다.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 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 된 사업이다.

2023년부터 국토부에서 매년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병목지점 개선사업(교차로개선)이 오는 2027년 마무리되면 평면선형 개량과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면서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교통사고 위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무주군 관련 사업은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성 등으로 지역주민과 무주군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결과 반영된 구간이다.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회전교차로는 무주~거창을 연결하는 국도와 구천동 관광단지 진입도로가 병행하는 구간으로 도로경사가 급하고 시야확보가 어려운 구간으로 개선 시급성이 요구돼 왔다.

국도 19호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회전교차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국도, 군도가 기형적으로 교차하여 개선이 시급한 구간으로 꼽힌다.

황인홍 군수는 "이번 무주군 관내에 10개소의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위험한 도로 등이 개선되면서 교차로 등의 주요 정체구간이 해소될 것이다"며 "교통사고 예방 등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몰 설맞이 할인행사 진행

진안군은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에서 설명절을 맞아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월 2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20여가지의 설 특별제품을 판매한다.

주요 품목은 진안고원에서 생산한 고구마, 겨울철 기관지에 좋은 약도라지, 진안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토마토, 사과 등 진안고원에서 생산한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군수 품질인증을 받은 홍삼액, 홍삼콜라겐, 어린이를 위한 젤리홍 등 홍삼제품, 장류 선물세트, 오미자청, 도라지배즙, 홍삼 삼계탕 및 진안고원몰 인기품목인 생강청과 청국장 등이다.

특히 기존 가격에서 최대 40퍼센트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으로 명절 대목 물가상승에 따른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 시 할인쿠폰을 발급받아 각 상품에 적용해 구매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진안고원몰 스마트스토어 및 최근 오픈한 자사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진안고원몰 관계자는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에 따라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해 명절 감사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간편하게 구매 가능한 세트상품 중심으로 이벤트를 구성했다"며 "청정 고랭지 진안고원에서 생산한 명품 농특산물로 고마운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2022년 종무식… "행복장수 건설 최선"

장수군은 지난 30일 군민회관에서 공직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임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가졌다.

종무식은 장수군의 1년간 발자취를 담은 주요업무성과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정부우수공무원, 총리모범공무원, 도정발전공무원, 군정발전공무원 및 기관·단체·군민에 대한 표창과 장수군수 송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우수공무원에는 조용호 재무과장이 대통령표창, 서원빈 주무관이 장관표창을 모범공무원에는 김성은 정보통신팀장과 박점숙 보건행정팀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장수군수 표창(군정발전 유공 군민)은 8명이 각각 수여받았다.

최훈식 군수는 "지난 일년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이끌어준 공직자 및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는 동심동덕을 자세로 장수군이 하나로 화합해 행복장수를 건설할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희망찬 계묘년 활짝 열었다

무주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기원 퍼포먼스·해맞이 행사

무주읍발전협의회(회장 정을윤)는 1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기원하는 퍼포먼스와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희망찬 2023년 계묘년을 활짝 열었다.

새해 첫날인 이날 무주읍 향로산 제1전망대에서 주민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계묘년 해맞이 행사를 갖고 새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해맞이 행사는 새해 덕담과 함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기원하는 만세삼창, 그리고 해맞이의 감격을 추억으로 남기는 기념촬영 등으로 의미있는 새해 첫날을 보냈다.

참석자들은 '힘찬 도약 무한한 번영 무주' 슬로건으로 시작한 해맞이 행사를 통해 계묘년 흑색 토끼띠를 맞아 "군민 모두가 좋은 일들을 많이 일궈 한 해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추진위원회 정진옥 위원장은 "계묘년 새해에 군민 여러분에게 반갑고 또 기쁜소식을 전할 수 있어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된 만큼 무주군의 백년대계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황인홍 군수는 새해 덕담에서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무주군민들과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다"며 "새해에도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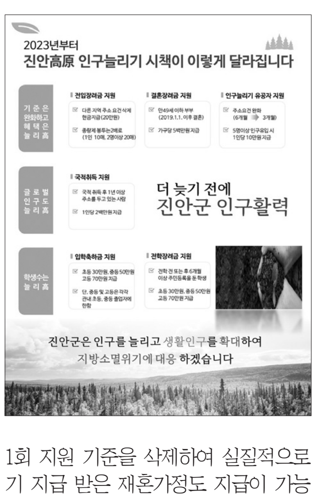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30일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2022년도 종무식을 갖고 지나온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 2023년 새해 군정의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종무식에서는 정부와 전라북도, 군 모범 및 군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축하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살기 좋은 진안' 달라지는 인구늘리기 시책

기존 사업 보완·학생수 늘리기 지원 등 신규 사업 시행



진안군은 전입 인구를 늘리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기존의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신규 사업을 시작한다.

군은 2023년 새롭게 시행하는 신규 사업은 국적취득 지원사업과 학생수 늘리기 지원 사업이다.

국적취득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다.

학생수 늘리기 지원 사업은 관내 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입학축하금과 전학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학축하금은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입학일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내 초·중·고에 입학하는 학생을 지원하고, 전학장려금은 전학 전 또는 후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중·고 전학생을 지원하며, 두 지원금 모두 각각 초등 3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70만원씩 지급한다.

기존 시행하던 전입장려금 지원사업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 기준을 삭제하여 지원자격 요건을 완화했으며, 함께 지급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량은 기존 1명 5매, 2명 이상 10매에서 1명 10매, 2명 이상 20매로 상향했다.

또한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생애 1회 지원 기준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기 지급 받은 재혼가정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했으며, 인구 늘리기 유공자 지원 사업은 관내 거주요건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고, 전입 임직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상향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사업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 누리집 인구시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새해에도 누구나 살기 좋은 진안을 만들어 진안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의회, 2022년 종무식 갖고 한 해 마무리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지난달 30일 '2022년 완주군의회 종무식'을 갖고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날 종무식은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실시 됐으며, 완주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송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경애 부의장은 전라북도시군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으며, 의정발전 유공 표창은 강정숙 의사팀장(완주군의회 의장), 이병호 주무관(전라북도의회 의장), 이영륜 주무관(완주군수)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남용 의장은 송년사를 통해 "제9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유독 바쁘게 돌아간 한해 였다"며, "완주군의회에 군민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해 동안 군민들의 행복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모든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완주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삼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식지 발간

완주군 삼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노유자, 이정근)가 한 해의 활동현황을 담은 소식지인 '도란도란 삼례사랑이야기' 9호를 발간했다.

지난달 30일 삼례읍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사각지대 및 복지자원의 발굴과 서비스 제공,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식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함께 동참하는 개인·기관·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년 2회 소식지를 5년째 발간하고 있다.

소식지에는 명절음식 및 김장나눔 지원사업, 행복찬(饌)지원사업, 자살예방 생명사랑 캠페인, 읍민의 날 위기가구 발굴 홍보 등의 특화된 복지허브화 사업과 우수사례관리 수기, 아름다운 삼례읍 소개코너 등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완주=이중복 기자